

05 폭설 대비



- 폭설 시 연료나 사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설이 예상되면 1주일 정도의 비상 연료나 사료를 비축
-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중간 중간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시설보강
- 폭설 시 가능하면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06 축사 화재예방 및 정전 대비



-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사용량 변경
-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 확인
-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된 콘센트 등 노후 전기시설 즉시 교체
- 전선,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
-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시설 확인 및 시공
- 축사 내 소화기 비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사용을 생활화
-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상태 및 유류량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재해보험 가입

07 가축 위생관리



- 축사를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 야생동물이 축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인과 차량 축사 출입제한
- 가축을 자주 관찰하고 가축 전염병이 의심스러울 때,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동물위생시험소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고전화 : 1588-4060

-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 063-238-0986
-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 063-238-7211

가축이 편안해야 농업인도 행복해 집니다.

겨울철

가축 관리 이렇게 합시다!



겨울철 외부 기온이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체열 유지를 위해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고 사료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축사육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여 생산성 하락을 막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축사 안전점검으로 시설 등을 보강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폭설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합니다.

01 가축별 적정온도



- 겨울철 강추위와 바람에 노출 될 경우 가축들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축사 적정온도 유지

구 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알맞은 온도(℃)	10~20	5~20	15~25	16~24

02 찬바람 막아주고 보온



- 개방형 축사는 윈치커튼(높낮이 조절 커튼)을 닫아주고 찬 바람을 막아 줌
- 밀폐형 축사는 단열과 보온시설을 점검하고 적정온도 유지 및 적절한 환기
 - 최저 환기를 통해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 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줌
 - 입기구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줄이고 차가운 공기가 가축에 직접 닿지 않고 축사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해 줌
 - 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이용하면 들어오는 찬 공기가 나가는 따뜻한 공기와 교차하여 축사에 들어오게 되므로 추운 날씨에도 효과적으로 환기 가능
- 어린가축은 특히 추위에 약하므로 찬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함
- 농장 안과 밖을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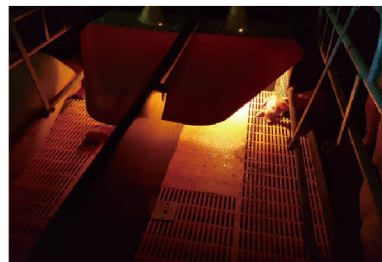
한우사 바람막이



송아지 보온



착유우사 바람막이



포유자돈 보온



위생적인 돈사관리



계사 단열

03 겨울철 가축 및 축사관리



한우

-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서북향에 방풍벽 설치
-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내려가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므로 사료 증량
- 물 공급이 부족할 경우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고 체내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므로 보온물통 이용
- 갓 태어난 송아지는 마른 수건으로 점액을 닦아주어 건조시키고 보온등을 켜어주어 온도를 25℃ 정도로 유지. 어미소의 유두를 깨끗이 닦아주고 빠른 시간 내(30분 이내)에 초유를 먹이도록 함

젖소

- 착유실과 급수시설은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온도가 적정온도 아래로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 증가
 - 0℃일 때는 정상보다 10%, 영하 10℃일 때는 20% 정도 사료 증량
- 젖소의 경우 하루에 물을 150~200L 섭취하기 때문에 물 섭취량이 대단히 중요(보온급수기 등을 활용해 20℃ 내외의 물 공급)
- 편하게 앉아 휴식할 수 있도록 축사바닥은 건조하고 부드럽게 관리

돼지

-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1℃ 내려갈 때 마다 사료량 1%씩 증량 급여
- 새끼돼지는 보온시설 등을 이용해 적합한 온도(30~35℃)를 맞춰 줌
- 보온에 치중하다 보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해가스가 높아져 나쁜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 실시
- 추운 날씨로 인해 음수 공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

닭

-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생산성은 감소하므로 계사 내 적정온도 유지
- 1주일 이내의 어린병아리 계사의 온도는 32℃ 이상 유지
- 최저 환기를 통해 계사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 신선한 공기 유입
 - 입기 시 바깥의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골고루 섞여 분산되도록 함
- 열풍기 등 온열제품 이용 시 과열에 의한 화재에 주의

04 농업인 안전



- 감기나 독감 등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철저
- 작업 시에는 방한복 ·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